



해외

WORLD

2500년 전 불교대학 복원

간다라미술문화연 파키스탄 탁실라에 재현

불교문화의 원류인 간다라 지역에 2500년 전 불교대학이 복원된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GACA)는 "최근 파키스탄의 탁실라(Taxila)지역에 21세기 형식에 맞는 2500년 전 불교대학을 재현 중"이라며 "파키스탄을 방문 중인 전태종 총무원장 운덕 스님이 파키스탄 정부와 함께 유적지에 학교를 짓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기원전 700년

전 세계 최초로 생긴 대학을 재현하는 것으로 약 3년여가 소요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는 정부와 공공기관 및 사립지원 단체, 한국, 일본, 중국 등 불교국가들이 지원하고 있다.

간다라미술문화연합회 줄피카라히 회장은 "이번 기획은 전 세계 불교신자들이 파키스탄을 방문해 예를 올릴 수 있는 관광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파키스탄의 간다라 미술 홍보와 보존을 위해 열린 세

미나에서 운덕 스님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종교, 인종적 대립 상황에 대해 '평화와 조화'를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은 "가톨릭, 개신교 등 각 종교들이 파키스탄에서 상업적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도 간다라 문화는 매우 평화롭고 조화로운 방법으로 모든 문화와 종교의 중추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 중국, 일본은 전통적으로 불교문화를 갖고 있고 이들의 뿌리는 간다라양식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국제불교영화제 IBFF 개최 "티베트 문화 보존"

영국 런던서 5월 7~17일

달라이 라마 호소

불교적 영감과 관점에서 해석된 불교 영화가 한 자리에 모이는 국제불교영화제(International Buddhist Film Festival: IBFF)가 영국 런던에서 열린다.

국제불교영화제는 영국 런던에 위치한 문화센터 바비칸(Barbican)에서 5월 7~17일 개최되며 미국 동부다큐멘터리에서 할리우드 블록버스터까지 불교적 아이디어와 영감을 담은 영화들이 상영될 계획이다. 상영 예정 영화는 18개국에서 출품한 총 46개 영화로 드라마, 코미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장르로 준비될 예정이다.

이번 영화제에는 켈트영화의 대표작인 도니 다코(Donnie Darko, 조니립·이안맥그리거 주연)가 영화제 오픈 상영작으로 선보인다.

영화제는 로버트 H. N. Ho 가족재단(하홍의가족기금·何鴻毅家族基金)의 지원으로 열려왔다. 영화제 개막에 앞서 4월 29일부터는 인근 화랑에서 로버트의 아



올해로 7회를 맞는 2009 국제불교영화제는 런던에서 5월 7~17일 열린다.

시아불교 조형물을 전시한다.

국제불교영화제는 전 세계에서 불교적 관점을 갖고 새롭게 재해석된 영화들을 중심으로 불교 신자가 만든 영화를 비롯해 불교를 테마로한 영화를 대상으로 한다. 영화뿐 아니라 광범위한 분야에서 불교테마와 아이디어를 통합해 불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선보여 왔다.

이나는 기자

"티베트 불교 문화를 보존, 보호해야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4월 12일 인도 북부에 새로 여는 티베트 수도원인 차임가찰링(Chime Gatsal Ling) 닝마 수도원(Nyingma) 개관식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새로 설립된 수도원은 인도 북부 히마찰프라데시 지역의 노르불링카(Norbulingka)의 티베트 문화 연구소 근처에 위치해있다.

이날 행사에서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 망명인들이 그들의 문화와 유산을 보존하기 하기 위해 기울였던 노력은 세계의 다른 지역 사회와 비교할 때 티베트지역사회를 가장 성공한 피난처로 만들었다"며 "티베트인들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 언어, 정체성과 종교를 지키기 위해 고난을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차임가찰링(Chime Gatsal Ling)의 설립자와 미국, 캐나다, 일본, 대만 등 수도원 건립에 기여한 후원국가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나는 기자

“세계 한 가족 이해하면 이곳이 고향”

지관 스님 행복한이주민센터 방문



지관 스님은 4월 15일 행복한이주민센터를 방문해 이주민 이웃들을 격려했다.

"세계는 한 집안이고 공동체입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며 따뜻하게 살아갑시다. 여러분들의 한국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지원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4월 15일 경기도 오산 행복한이주민센터(상임대표 정호)를 방문해 '이주민 이웃'들을 격려했다.

14일 서울시청앞 광장에서 '희망과 나눔의 등' 점등 후 축원을 통해 "다문화 가족의 어려움도 보살펴 달라"고 말해 이주민 이웃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스님의 이번 방문은 조계종이 다문화가정 지원에 본격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조계종 차비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다문화 가족의 교육현장을 둘러보고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정호 스님(옹주사 주지), 정호 스님(행복한이주민센터 상임대표·대각사 주지), 대오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이기하 오산시장, 행복한이주민센터 자원봉사자 등 15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지관 스님은 방문 기념사에서 "먼 나라에서 온 이주민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편하게 도와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공덕을 짓는 일"이라며 "행복한이주민센터가 더욱 발전해

이주민들의 보금자리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관 스님은 센터 내 컴퓨터교실과 놀이방 등 시설 등을 둘러본 뒤 20여 다문화가정 여성을 대상으로 한글 특강을 진행했다.

일일교사로 나선 스님은 칠판에 태극기를 그리며 의미를 설명하기도 했다.

스님은 태극무늬의 음양에 대해 설명하며 한국에서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리게 된 인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스님은 "세계가 한 가족이니, 서로 이해하면서 살길 바란

다. 고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정이 들면 지금 살고 있는 한국이 고향이 된다"며 다문화가정 여성들을 격려했다.

특강 후 스님은 다문화가정 여성과 자녀들에게 인형과 요리책 및 유아용 놀이 한글카드를 선물했다. 이때 한 스리랑카 출신 스완나(40)씨가 지관 스님에게 절을 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한국에 온지 10년이 된 스완나(40)씨는 "스리랑카는 70~80%가 불교신자다. 나도 불자이기 때문에 스님을 뵈는 게 영광이어서 절을 했

다"며 "초등학교 1학년인 큰 아이와 24개월 된 작은 아이와 매주 센터를 방문하는데 한글도 배우고 아이들도 이곳을 좋아해서 만족한다"고 말했다.

2003년 베트남에서 결혼, 이주해 귀화한 윤혜숙(27)씨는 "이주민센터에서 한글교실과 요리교실, 탁아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한국문화에 적응하고 있는데, 큰스님께서 오셔서 격려해 주시니 반갑기만 하다"고 말했다.

캄보디아 출신 삼름나미(24)씨도 "한국 스님에게서 한글을 배우니 더 새롭다"며 "한국에서도 절에 열심히 다니며 빨리 한국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밝혔다.

한편, 대각사 행복한이주민센터는 오산시 거주 18개 나라 500명의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 2007년 6월 개관해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2세를 대상으로 한국어 및 외국어교육과 컴퓨터교실 등 교육프로그램과 의료, 탁아방 운영 등 복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조계종 기획실 관계자는 "향후 보건복지부 등 정부 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사활별 다문화 지원센터를 개설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거북이마라톤 참가

단양노인장애인복지관(관장 전해두)은 4월 17~18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제6회 사랑의 거북이 마라톤 대회에 참가했다.

사단법인 사랑의 손길 '새소망'이 주최한 행사는 자원봉사자 등의 도움이 없으면 거동이 불편한 재가 중증장애인들이 자원봉사자와 2인 1조가 돼 11팀이 참여했다.

복지관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비장애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는 장애인과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정서적 지지 및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는 기회를 제공하게 했다"며 "참가 장애인들이 자신의 운동능력을 '마라톤'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직접 경험하고 비장애인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어느 정도 이루어졌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나는 기자 043)421-2828

장애인과 함께 사는 세상 위해

4월 25일 영주장애인복지관 캠페인

영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도훈)은 제29회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장애예방 및 인식개선캠페인 'open your mind' 가족과 함께하는 장애체험 한마당을 진행한다.

4월 25일 오후 1시부터 소수서원에서 열리는 행사는 시각장애측구, 휠체어체험, 구족화그리기 등 체험마당과 전시마당으로 구성됐다.

전시마당은 2008년 베이징장애올림픽 금메달리스트와 영주



가족들과 휠체어 체험을 하고 있는 모습.

시장애인구에 대한 안내를 전시에 지역주민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다. (054)633-6415

이나는 기자

달마학교 개관

봉은사(주지 명진)는 독서에 지역 아동센터를 개관해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4월 18일 봉은사 달마학교(센터장 윤성자) 개관식에는 봉은사 총무국장 진화 스님, 포교국장 맥산 스님, 이호조 성동구청장, 봉은사 신도회장, 윤성자 센터장, 선우어린이집 원장, 강남구립역삼초소년수련관장 등 5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달마학교는 성동구 최초의 청소년대상 지역아동센터로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양질의 교육 문화 서비스를 제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기위한 목적으로 설립됐다. 또한 학교는 기초학습과 문화활동, 체험학습, 급식 등을 지원한다.

이나는 기자

빙의(귀신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중생... 그 고통을 함께합니다

빙의치유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한인지? 천도

전생체험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상임자에게 사업성취를... 원인을 악질증상 등을 좋은 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빙의(귀신병)퇴마, 우울증, 대인공포, 불면증, 게임중독, 성적향상 등등... 원인을 불치병... 하는 일마다 안풀리는 분은 사주를 바꾸세요. 산소수맥

빙의, 퇴마, 전생, 최면치료 (최면 시술사 과정 모집)

최면 수련을 통해 노력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교육기간 : 본인이 원할 때까지 ◇ 교육비용 : 200만원 ◇ 최단기 집중교육도 가능

◇ 스님이나 포교사님 현오스님만의 특별교육도 가능(본인이 원할 때 추가비용 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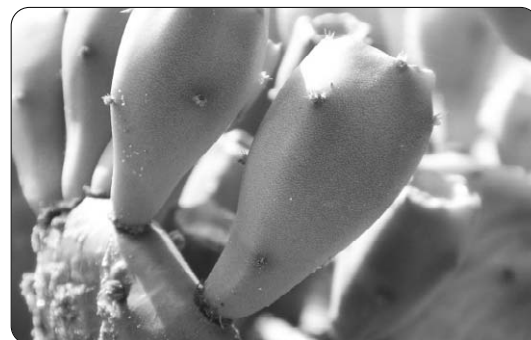
"2009년 3월 3일 MBC TV 특종 놀라운 세상 「귀신씩인 나무의 실체」 편 출연"

<p>서울지부 : 보광사 H·P 016-9511-0840 ●서울교육 : 연중무휴</p>	<p>부산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42-0666 / 364-5586 H·P 010-5656-3915 / 010-3056-3315 ●부산교육 : 연중무휴</p>
--	--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 ※

성봉사 퇴마사 현오 합장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천/년/초를 아십니까?



천년초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노지에서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는 다년초 식물로 혹한의 영하 20°C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나라에서만 자생하는 토종 선인장입니다. 특히, 어떠한 병충해에도 죽지 않고 농약, 제초제,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무공해 자연식품이며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식물"이라 불릴만큼 어떤 식물과도 비교할수 없는 높은 성분을 함유한 소중한 우리의 자원입니다.

직접 몸으로 느껴 보십시오.

한겨울 영하 20°C의 혹한 속에서도 살아나는 강인한 생명력의 천년초! 천년초의 놀라운 생명에너지를 직접 체험해 보십시오.

*천년사랑에 사용하는 천년초는 유기농 천년초 100%를 사용해 만듭니다.



무료샘플신청 02)780-3989 (천년초 책자와 농축액 2일분을 무료로 보내드립니다)